



“건강한 저는 괜찮아요, 어려운 이웃에 전해주세요”

익명 남성·여중생 파출소에 마스크 전달
하귀파출소, 소외계층 등에 지원할 예정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경찰관을 돕겠다며 파출소에 마스크 선물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2분쯤 하귀파출소에 4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나타나 출입문 앞에 마스크 17매와 초콜릿을 놓고 사라졌다. 이 남성이 선물과 함께 남긴 자필 메모에는 “다들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데 건강한 내 몸만 챙기는 것 같아 부끄러운 개수지만 조금이나마 보탬니다”라며 “새벽 출근 길에 마트 앞에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줄 서 있는 것을 봤는데 주변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장애인분께 전달하고 싶습니다”라고 적혀있었다.

이어 “너무 적은 양이라 창피하지만 용기를 내봅니다. 수고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덧붙혔다.

이에 앞서 전날인 17일 오전 10시 40분쯤에도 제주여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모(3학년)양이 하귀파출소를 찾아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경찰관을 돕겠다며 마스크 17장과 초콜릿 등을 선물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도민들이 어려운 시기



에 따뜻한 마음을 받아 더욱 도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귀파출소는 이날 기부된 마스크 전부를 하귀2리장에게 전달했으며, 전달된 물품은 지역 내 소외계층 등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김현석기자

제주대 GTU사업단 4년 연속 ‘우수’



제주대학교 글로벌교원양성거점대학 사업단(GTU사업단, 단장 오홍식·사진)은 최근 실시된 2019년도 연차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 GTU사업단은 2016년부터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올해는 달라진 평가방법에 따라 최상위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연구재단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사업 취지를 잘 살리고 있고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편성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교육실습과 교육봉사 학점 인정 체계를 마련하는 등 다른 사업단의 귀감이 될 만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선정이유를 설명했다.

광해관리공단 상임이사에 강철준씨



한국광해관리공단은 16일자 인사에서 신임 상임이사에 제주출신 강철준(58·사진) 광해사업본부장을 임명했다.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 강 신임 상임이사는 서귀포시 법환동 출신으로 서귀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하대학교를 졸업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광해사업본부장, 석연탄 산업지원단장, 경영전략본부 경영지원처장 등을 역임했다.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광산개발로 인해 국민건강생활에 미치는 피해요인을 분석·제거·예방하는 광해방지사업과 석탄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예래동부녀회 자체 제작 마스크 기부



예래동새마을부녀회(회장 나성순)는 지역 내 공적판매처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예래동 주민들을 위해 면 마스크 100장을 직접 제작해 예래동주민센터에 전달했다.

제주비료·제주양돈농협 방역활동



농협회사법인 제주비료(대표 이용민)는 지난 17일 제주양돈농협(조합장 고권진) 방제단과 합동으로 사업장과 사무실 주변 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등정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예방

◇강창일 국회의원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 국회의원회를 대표해 불교계와 종단이 진행중인 코로나19 극복 성금 모금 캠페인 참여 금일봉을 전달.



일제 방역소독의 날 운영

◇양윤경 서귀포시장 18일 일제 방역소독의 날을 운영해 공직자, 군부대 및 자생단체 회원들과 시내 공공시설 등에서 직접 방역활동을 전개.



청결지킴이 근로자 안전관리 당부

◇강현수 대륜동장 지난 17일 환경미화원, 재활용도움센터 청결지킴이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 안전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

제주해경 불법어선 신고한 선장에 감사장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불법 조업 어선을 신고해 단속에 도움을 준 선장 J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J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비양도 북서쪽 약 14km 해상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해 불법 조업하고 있는 저인망 어선 C호를 제주해경에 신고했다. J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C호를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었다.

범제주농협공동방역단 오일장 방역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사회 방역 지원을 위해 지난 12일 출범한 ‘범제주농협 공동방역단(단장 백희방)’은 지난 16일 제주시민속오일장에 이어 18일 한림오일시장에서 방역활동을 전개했다.

농협에서 보유한 방역차량 등의 방역장비와 방역인력을 동원한 이번 방역은 사전 협의한 내용으로 오일장이 열리기 하루 전에 이뤄졌다.

우영매·윤남호씨 산자부 장관 표창 상공의 날 기념… 김경란씨도 수상

‘2020년 제47회 상공의 날(3월 18일)’을 기념해 우영매 뉴화정국제여행사 대표와 윤남호 롯데면세점제주 부점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 김경란 제주사랑렌트카 대표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주한외국인기업 부문 수상자인 우영매 대표이사는 2012년 회사를 창립한 이래로 중국 40여개 도시에 전세기를 취항시키는 등 도전적·독창적인 경영전략으로 국내에서 최고의 중국 관광객 유치실적을 기록하는 등 제주관광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고용창출 및 기부, 후원 등 공헌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모범관리자 부문 수상자인 윤남호 부점장은 20년간 재직하면서 해외관광객 제주 유치, 고용창출, 매출 증대



우영매 윤남호 김경란

등 제주도 내 유통산업 분야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출연을 비롯해 사내봉사동아리인 ‘샬롬봉사단’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생필품은 물론 식자재 전달, 난방 취약가구 연탄나눔 및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모범상공인부문 수상자인 김경란 대표이사는 2006년 대여용 자동차 50대로 창업해 지난 14년 동안 모범여성기업인으로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370여대의 차량을 보유한 중견 렌터카 업체로 기업을 성장시켰다. 특히 제주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주도 지정 최우수업체로 3회 연속 선정되며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돌빛나돌담보전회 돌담 쌓기 봉사

돌빛나돌담보전회(회장 조한진, 이하 돌담보전회)가 지난 14일 제주시 한림읍과 애월읍에서 돌담 쌓기 봉사를 이어갔다.

돌담보전회 회원들은 이날 한림읍 금능리 배령연대 돌담길과 애월읍 금성리 잣성길에서 허물어진 돌담을 복원했다. 담을 뒤덮은 넝쿨을 제거하고 무너진 담을 다시 쌓으며 그동안 형태 없이 방치돼 있던 돌담을 되살렸다.

돌담보전회 관계자는 “돌담을 복원한 뒤 드러난 배령연대 돌담길은 정말 아름다웠다”며 “올레길 옆에 감춰



져 있던 아름다운 길을 다시 발견하고 걷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WINIX

공기청정기

신광로터리 ● 빽스 ● 오양병원 ● 신제주로터리

구입문의
제주대리점 064)758-0991

타워프라임

APRM833-JWK (26평)

~~599,000원~~
500,000원

타워X

ATGM500-JWK (15평)

~~329,000원~~
265,000원